전주시, AI 데이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

전북에이아이데이터센터와 '전북 AI 데이터센터 구축 · 운영 업무협약' 체결… 3007억원 투입 내년 완공 목표

갈수록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전주에 들어선다.

전주시와 ㈜전북에이아이데이터센터(이하 ㈜JBAIDC)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정천 ㈜JBAIDC 회장을 비롯한 ㈜KT 전남전북광역본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등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JBAIDC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3007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일원(1만1599㎡)에 수전용량 9.8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JBAIDC는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전담키로 약속했다.

전주시와 ㈜전북에이아이데이터센터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이정천 ㈜JBAIDC 회장을 비롯한 ㈜KT 전남전북광역본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등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AI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향후 조성될 '전북 AI데이터센터'가 앞으로 지역 내 AI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전북 지역의 디지털 경제 혁신을 달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북 지역의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시와 ㈜JBAIDC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디지털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전북 AI데이터센터 구축은 전주시가 AI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수요에 발맞춰 지역의 데이터관리 경쟁력 확보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데이터센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중소유통)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지역 대형유통사(롯데마트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와 '전주시-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대 · 중소유통 상생협력 본격화

시-전북전주수퍼마켓조합-체인스토어협회-지역 대형마트 3사, 협약

전주지역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강한경제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는 지난 20일 전주 부시장실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중소유통)과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지역 대형유통사(롯데마트 전주점, 이마트 전주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와 '전주시-대·중소유통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 부회장, 지역 대형마트 3사의 지점장 등 대·중소 유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상생형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전주형 상생유통 플랫폼 2.0'을 안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형마트 내 '지역상생존' 구축을 통한 중소유통 PB상품 입점 및 홍보 지원 △대형유통사의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공동마케팅 추진 △협약의 원활한 이행과 지속 가능한 성과 관리를 위한 정례협의체 구성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밑그림 그린다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가져

전주시가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주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단순한 인증 취득을 넘어 전주시 시정 전반에 성평등 가치를 실효성 있게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주요 연구 과업은 △전주시 성인지 통계 구축 및 성평등 환경진단 △지역 특성을 반영한 5대 목표별 특화사업 발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됐다.

시는 오는 2027년 성평등가족부 인증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앞으로 △성평등 정책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참여단과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주만의 특색을 담은 차별화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정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그동안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지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과 더불어,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일 윤동욱 전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과 소관 국·과장,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주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외부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주소통협력센터, 시니어 IT · 금융 전문 강사 양성 나서

전주시지역소통협력센터는 시니어금융협의회와 협력해 '시니어 IT·금융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카카오의 후원 아래 지자체 예산 투입 없이 3000만 원 규모의 민간 자원을 유치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과정에는 우선순위로 선발된 전주시 온두레공동체 및 마을공동체 회원 등 총 16명의 예비 강사가 참여하게 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법부터 AI 교육까지 아우르는 이론과 실습, 강의 시연 등 총 9회차의 심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양성된 전문 인력은 향후 지역 내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 활동하며 노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해도 임산부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키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산모의 영양 관리를 돕기 위해 올해 17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다.

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임산부 가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동일 자녀에 대해 임신부일 때 이미 지원을 받은 산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로 전북에코푸드(eco.jbfood.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에게는 '임산부 전용 주문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8만4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임산부는 지급된 포인트에 자부담 9만6000원을 더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유기 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직접 선택해 주문할 수 있으며 모든 물품은 신선하게 거주지까지 배송된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산모와 아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을 돕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등 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